

# “경제성장효과 6%… 조속 비준을” “대미무역 적자 우려… 재검토해야”

## 외통위, 한미FTA 2차 끝장토론 찬반 공방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2차 끝장토론에서는 찬반 양 진영의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남경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차관, 반대 측에서는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연구원장이 찬반 입장을 개진했다.

양측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딜레마 상호토론’을 하며 물고 물리는 설전을 벌였다.

찬성측은 개방으로 가야 한다며 신

속한 비준을 주장했고 반대 측은 협정 보류 내지 재검토를 각각 주장했다.

쟁점 토론에서 정 의원은 “금융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미무역적자 우려가 될 수 있다”며 “무역적자 증가를 한미 FTA 추진의 이유로 얘기하는데 변화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발언이 있었는데 무역의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이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됐다”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계가 힘을 합쳐 보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 산출 방식을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효과 추계시 CGE(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 방식을 써서 약 6~5.7%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를 추정하는데 국제 표준모형에 근거해 추계하면 0.08~0.13%에 불과하고 미국 측의 한 보고서에도 역시 0.2~0.03% 정도로 나온다. 정부 자료와 미국제위원회가 낸 추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단장은 “경제적 효과를 보는 방법에는 관세철폐 효과만 보는 단기적 방법과 자원배분 효과까지 보는 장기적 방법이 있다”면서 “단기분석에 보면 실질 증가치가 0.02%로 낮게 나온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관행개선으로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는 것 등을 보면 5.66%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CGE 모델이 뭔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면서 “CGE 결과가 마이너스 나온 것 있으면 말해 봐라. 마이너스는 안 나오게 돼 있다”고 따졌고, 이에 황 단장은 “경제적 효과를 단기적 관세인하만 갖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시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펼쳐지는 끝장토론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각각 생중계로 진행되며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차 토론 말미에 “유익한 토론”이라며 “국민이 볼 수 없는 자투리 시간에 하는 것은 문제”라며 토론회시간에 재검토를 요구했고, 남 위원장은 본회의 종료 후 녹화 재방송 등을 약속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최인기·김효석 국감 우수의원에

### 한농연 선정

최인기, 김효석 의원이 20일 한 농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과 우수의원에 각각 선정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의원은 정쟁 없는 국감을 진행하여 온 점과 FTA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으며, 김 의원은 생활현장의 목소리와 정책대안 제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수행, 생활정치국감의 전형(典型)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농연은 국회의원들의 농업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성실도, 정책 제언의 참신성, 농업인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



최인기 의원 김효석 의원

장도, 질의 충실성 등의 기준으로 모니터링해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김태홍 전 의원 영결식

김태홍 전 국회의원의 영결식이 2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 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기각

# 檢, 재청구-불구속 기소 고심

검찰의 '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 수사자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새벽 두 사립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인물과 당사자인 두 사람의 신빙을 믿어내기에는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차관 재직 시절 등에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썼고,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인허가와 2009년 창원

지검 사건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로서는 공범이 오간데다 청탁의 정황이 포착된 만큼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립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던 셈이다.

이 회장에 대해 적용된 900억원대 횡령 혐의와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받아냈다는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RG)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듯하다.

정경범을 선택하면서 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검찰로서는 자존심에 작은 상처를 입은 데다 향후 수사계획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층 불붙었던 수사 동력이 저하되거나 정치권의 ‘부실수사’ 비판에 직면할 여지도 없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이 그간 충분한 수사를 해왔다는 데 있다. 이 회장을 네 번, 신 전 차관을 세 번 소환한데다 주변인물까지 모조리 조사했고, 이 회장 쪽으로는 지인들까지 압수수색을 해 필요한 입증자료를 수집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유의미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에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인 만큼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한다면 단숨에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남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검토”

### 김향식 총리

김향식 국무총리는 20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

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증하는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를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대기아차 美 현지생산 급증 FTA 발효해도 국내 고용 미미”

### 박주선 의원 주장

미국 내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이 급증하여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더라도 자동차 산업의 고용 창출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외교통상상부에서 받은 ‘현대기아자동차 미국 수출실적’을 토대로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 후 수출차량은 2006년 57만2000대에서 2010년 58만4000대로 1만2000대 늘어난 반면, 미국 현지생산차량은 2006년 23만6000대에서 2010년 45만5000대로 21만9000대로 급증했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경우 2006년 미국 현지생산 차량이 한 대도 없었으나, 2010년 현재 15만4000

대를 현지에서 생산 판매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미FTA 속도전의 근거로 국내 자동차의 경쟁력 확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현대기아차는 국내 생산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차량을 판매해왔다”면서 “결국, 한미FTA로 인해 미국 측 고용만 늘어나고 우리 국내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대단히 미미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한미FTA로 자동차 경쟁력이 대단히 올라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관세 감소분은 2.5%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관세 철폐 역시 발효 후 4년 뒤에 철폐되며 관세 2.5%는 환율변동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대통령 논현동 자택

### 공시가 16억 낮게 책정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 자택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6억2000만원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시의 부동산 종합정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이었으나 1년만에 19억6000만원

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세액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착오로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오늘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 공시를 하고 추가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현동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35억8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www.makgeollifest.co.kr

# 201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 2011 Korea Traditional Liquors Grand Festival

**기간: 2011.10.27(목)~30(일) 4일간 장소: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막걸리의 날’ -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올해는 10월 27일)로 지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합니다.

**2011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  
대한민국 유명막걸리 모두 모여라!

- 개막식: 10. 27(목) 14:00~15:00 / 특설무대
- 막걸리의 날 선포식, 햅쌀막걸리 술독개봉식
- 8도 막걸리 합주 간배식 등
- 전시·홍보행사 / 행사장 일원
- 8도 막걸리 명품관, 양조장별 산업전, 막걸리 특별 주제관, 막걸리 카페 등
- \* 막걸리 시음은 공모를 통해 개발한 품격있는 전용잔 사용(현장 대여)
- 문화공연 / 특설무대
- 국악공연, 비보이공연, 드럼퍼포먼스, K-POP 커버댄스, 통기타공연, 대하영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
- 참여행사 / 행사장 일원
- 제6회 코리아컵 키데이일 경연대회, 막걸리 퀴즈쇼, 소평호스트 경연, 팔씨름대회, 심형시 짓기, 막걸리 키데이쇼, 말 만들기 등 체험이벤트 진행

**201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숨어있는 대한민국 명품주를 찾아라!

- 기간/장소: 10. 28(금)~30(일) / 행사장내 별도 공간(품평회장)
- 참가 주종(8개 주종): 국내에서 생산중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시·도별 지역예심을 통과한 총 115개 제품이 출품되어 경합
- 선발 제품수: 각 주종별로 4점씩(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32점
- 시상금: 각 주종별 대상(大賞) 300만원 등 총 6,000만원
- \* 시상장 주변에서는 전통주 복원관, 해외 바이어즈, 전통주 명인관,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만남 행사 등 다양한 행사 진행

**2011 햅쌀막걸리 출시 전국 동시 판촉전**  
프랑스에는 보졸레누보, 한국에는 햅쌀막걸리!

‘막걸리의 날’(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인 10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양조장 및 유명 유통매장에서 2011년 햅쌀막걸리 판매를 개시하고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 2011년 햅쌀막걸리에는 정부에서 제작·보급한 통일 햅쌀막걸리 표시 태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합니다.

판촉전 기간: 2011. 10. 27(목)~12. 31(토)

장소(유통매장): 전국 20,000여개소(대형마트, SSM, 편의점, 백화점 등)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굿모닝마트, 에브리데이, 키스클럽마트, 세이브존, 농협하나로마트 등

편의점: 헤미리마트, GS 25, 세븐일레븐, 바이더데이, 미니ストップ 등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서울신문,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서울특별시, RDA, 한국관광공사

문의: 02-500-1952~3